

**요르단, 공공채무 리스케줄링 타결로 한숨 돌려**

**1. 요르단, 6번째의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협정을 7월 10일 체결**

○ 리스케줄링 대상 채무

- 파리클럽 회원국에 대한 채무 38억 달러 중 **12억 달러** (2002.5.1자 기준, 2007년 말까지 상환기가 도래하는 채무)

○ 리스케줄링 조건

- 2국간 채무: 거치기간 12년 포함 22년 상환
- 수출신용: 거치기간 5년 포함 20년 상환

\* 요르단은 지금까지 파리클럽 회원국에 연간 3억 5천만 달러의 원리금을 상환해왔음. 리스케줄링으로 대외지급능력이 향상되면서 요르단은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.

○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협정에 의해 요르단이 파리클럽 각 회원국과 맺는 2국간 리스케줄링 협정 하에서 리스케줄링 채무의 30%까지 요르단 내의 투자나 개발 프로젝트 지분으로 교환될 수 있음

**2. IMF와 새 경제개혁 프로그램 협약 체결**

○ 7월 3일, 2년 짜리 새 경제개혁 프로그램 협약 체결

- 2001년에 개시된 3년 짜리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
- IMF는 기존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이행 상황에 만족한다고 발표

\* 요르단의 국가신용등급: Ba3(Moody's), BB-(S&P)

선임연구원 강준수(☎3779-6645)  
E-mail: jkang@koreaexim.go.kr